

새롭게 시작하는 12단계 성경공부

지난 수요일 전야제 열려

12단계성경공부가 차별화된 새로운 모습으로 2014년 9월 3일부터 2016년 12월까지 주님의교회 대예배실(본당)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된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27일에는 12단계 성경공부 전야제로 “말씀과 함께하는 어린이 음악회”를 열어 아이들이 먼저 말씀으로 하나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전야제는 특히 주님의숲 어린이들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한달 동안 준비한 음악회로 마련되었다. 유지부 담쟁이 친구들의 찬양 활동부터 어린이 합창단, 오케스트라, 발레 공연 후, 박원호 담임목사의 설교 “말씀의 잔치”가 이어졌고,

“나의 사랑하는 책”의 찬양과 축도로 끝났다.

하나님 나라 찾는 증보, 완결판

새롭게 시작하는 12단계 성경공부는 “전혀 다르게” 라기보다는 “보다 더 알차고 새로운”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 속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주고자 한다. 쉽게 말해 증보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하여 성경공부를 배우는 모든 성도들의 현실에서 납득할 수 있는 전체적인 관점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말씀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이것을 꼭 우

리들의 삶에서 적용점을 찾고 삶의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하게 된다. 그래서 12단계 성경공부를 꾸준히 성실하게 임한 모든 성도들이 성경공부를 통하여 많은 내용들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놀라운 삶의 변화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출석이 어려우면 인터넷으로

12단계성경공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째, 전체적인 일정은 각 단계별로 8주 강의를 하고 2주간 휴식으로 진행되며 총 12단계를 진행한다. 단절기에 따라 일정은 변동 가능하다. 둘째, 수료조건은 각 단계별로 7번

이상의 출석과 함께 기말과제 제출하면 단계가 수료된다.

셋째, 출석은 RFID 출석카드로 전자 체크식으로 진행한다.

넷째, 교재는 각 단계별로 발간될 때 구입하여 사용한다.

다섯째, 반 운영은 현장에서 강의 듣는 수요반과 온라인상에서 강의를 듣는 인터넷반 두 반으로 운영되나 실질적으로 여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요반을 권장하며 수요반은 인터넷으로 수업을 함께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12단계 성경공부를 담당하는 홍성욱 목사에게 문의하면 된다.

> 8면으로

함글함글



2014년 특집 I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평화의 모범’ 보인 교황의 나날

프란치스코 교황이 8월 14일부터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바티칸으로 돌아갔다. 25년만의 교황 방한으로 일찍부터 기대의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방한 이후 그의 파격적인 행보는 현재 우리나라 곳곳에 드러나고 있는 사회 문제와 맞물려서 전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가 보여준 검소하고 소탈한 모습과 사회적 약자를 향한 위로자로서의 역할은 개신교도 역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그는 이 땅에 도착하자마자 우선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았다. 이주노동자와 장애인을 만났다. 자식을 잃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고통을 나누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는 가장 작은 차를 타고 이동했고, 방탄차와 과한



경호를 거부했다. 낮은 사람과 같은 자리에서 같이 밥을 먹었고, 거리에서도 아이들만 보면 축복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콘클라베에서 교황으로 선출된 뒤, “부족한 저를 교황으로 선출한

저 추기경들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여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웃기기도 했지만, 그 유머는 권위를 버리고 권좌에서 내려와 낮은 곳을 찾는 출발이기도 했다. 그는 교황의 처소가 아니라 사제들의 숙소에서 거거하고, 그들의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 그는 실로 스스로 낮아져 오히려 못 사람들의 추앙을 받은 보기 드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웃음은 보는 이를 행복하게 하고, 그의 낮은 행보는 사회의 그늘에 빛을 비추어 주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말 뿐인 평화, 말 뿐인 사랑에 대해서도 경계한다. 그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사도적 권고’에서, 그는 “늙은 노숙자의 죽음은 뉴스가 되지 않고, 주식시장이 2% 빠지는 것은 뉴스가 되는 세상, 이것이 바로 배제의 경

제다. 배제와 불평등을 일으키는 경제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다”라면서 사람의 생명을 중심으로 생각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한 것과 같은 뜻이었다.

또한 그는 낮은 자들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만났다고 했으면 만났고, 간다고 했으면 갔다. 그가 떠나기 전 한 소녀가 준 꽃다발을, 약속한대로 귀국 길에 성당에 들러 바친 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감동했다.

‘사랑’을 비롯한 그가 남긴 메시지들은 대부분 새로운 것이기 보다는 우리가 늘 들어왔던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 그것을 남의 눈에 티끌 찾는데 적용하기 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 그는 ‘평화란 무엇인가’의 보기 드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함글함글**

평화의 삶 위한 이 한권의 책

은혜를 찾아 길을 떠나다

필립 안시, 윤종석 옮김, 청림, 2010



필립 안시는 2009년 10월 주님의교회 가을신앙사경회를 이끌었던 복음주의 작가이자 영적 구도자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 비참한 세상에 하나님이 무슨 소용인가?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책은 바로 그가 발로 찾아 다닌 비참한 곳에 대한 기록입니다. 박해받은 시골 농부, 총기사건의 희생자, 성매매 여인과의 만남 등을 통해 그는 고통의 현장에도 임하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세상이 선하지 않을수록 하나님이 더 필요하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

함글함글

> ‘평화의 삶 위한 이 한권의 책’은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음에 도움이 될 좋은 책들을 선정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추천 도서도 환영합니다. **함글함글**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63

贖罪祭 (속죄제 sin offering)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 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레위기 4:2~3)

聖經的(성경적) 意味(의미)

1. **제사 성격** : 하나님 앞에서 무의식중 범한 종교적 죄를 용서받는 제사. 즉 주로 절기나 제사 등 종교 의식을 수행하는 도중에 행하여진 허물이나 하나님을 향해 그릇 행한 일을 대상으로 시행되던 제사. 자신의 철저한 참회와 하나님의 사죄 곧 죄용서의 은총이 나타나 는 제사이다.

2. **희생 제물** : 희생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자의 신분과 재산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3. **제사 방식** : ①내장의 기름,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간에 덮인 꺼풀 등 모든 종류의 기름을 번제 단에

서 불살랐다. ②나머지 부분은 제사장이 성막 뜰에서 먹었다. ③기름 이외에 가죽을 비롯한 모든 부분을 제사장이 먹을 수 없었고 모두 진 밖에서 불에 태워야했다.

4. **영적 의미** : 늘 죄인을 위해 代贖祭物(대속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을 豫表(예표)한다.

文字的(문자적)意味(의미)

★贖(속죄할 속): “돈이나 재물”을 뜻하는 貝(조개 패)에 “교역하다”의 뜻이 있는 賣(팔 매)를 결합시켜 ‘재물을 바치거나 자신을 노예로 팔아 죄 값을 속한다’는 의미의

글자가 만들어졌다.

★罪(허물 죄): 罒(그물 망)의 변형체 𠂔(그물 망 머리)와 “그릇되다”의 뜻이 있는 非(아닐 비)를 합쳐 <법의 그물에 걸려든 그릇된 행위가 허물이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祭(제사 제): ‘고기’를 상징하는 肉(月육달 월, 고기 육, 몸 육)과 ‘손’을 의미하는 又(또 우)와 ‘제사 그릇이나 神(신)’을 뜻하는 示(보일 시)를 결합하여 ‘고기를 손으로 장만하여 제기에 올리고 신에게 제사 지낸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함글함글

청소년 사역원 미자립교회 청소년 여름 신앙캠프

주님의 나눔 속에서 함께 받는 은혜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미자립교회 청소년 여름 신앙캠프는 “내 삶의 변화”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들의 청소년을 초청하여 하나님 나라의 나눔을 펼치는 캠프가 이번에는 13교회에서 온 청소년들과 스텝들을 합쳐 100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 하며 열렸습니다.

낮설음과 약간은 들뜬 모습으로 참여한 아이들은 기도하지 못하는 입, 안지 못하는 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캠프가 진행되면서 강사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회, 찬양 콘서트, 꿈꾸는 프로젝트‘통’을 통해 기도하고, 서로 안고, 말씀을 듣게 되는 은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아이들은 기쁨의 변화를 안고



각자의 교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자신의 교회로 돌아가 그곳에서 나눔의 손길이 되고 또 다른 나눔의 손길을 계속 이루어 가며, 청소년들도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기

를 기도합니다.

더불어 이런 성령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된 것은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는 청소년 사역원 식구들과 다른 교회에서 도움을 주려온 청년들의 섬김과 나눔의 손길이 있었

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교회에 작은 교회의 청소년들을 위해 빛을 진 주님의교회(롬 1:14)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나눔이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준엽 전도사/ 청소년사역

2년 만에 열린 킹덤비전 영어캠프

하나님의 나라는 아이들의 것

주님의교회 킹덤비전 영어캠프가 2년 만에 다시 개최되었습니다. 8월 4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의 일정으로 5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풋스텝 선교 단체 소속 선교사님들은 영어뿐만 아니라 과학, 창작활동, 요리와 문화, 그리고 미국 전통 게임 및 레크리에이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번 캠프는 매일 아침 9시, 소예배실에서 신나는 찬양운동으로 시작되었고, 9시 15분부터 12시까지 ESL반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ESL반에서는 특별히 학생들이 팀 별로 글짓기를 하여 그림책을 만들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학생들은 소예배실에서 성경이야기를 듣고, 오후에는 활동위의 수업들이 반별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캠프들과 같이 이번 영어캠프도 이국적 정취가 느껴졌습니다.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온두라스, 나이지리아, 베트남, 과테

말라 이렇게 네 나라의 이름을 반에 편성되었습니다. 온두라스는 풋스텝 선교단체가 운영하는 고아원이 있는 곳이고, 나머지는 주님의교회에서 단기선교팀을 파송한 나라들입니다. 여러 나라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리적인 경계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풋스텝 영어캠프 멤버들은 주님의교회에 오기 전 이미 4주에서 6주정도 타이완, 중국, 그리고 한국의 다른 교회에서 영어캠프를 하고 온 상태였습니다. 뽀뽀하고 지친 일정에도 불구하고 멤버들은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는 활기와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특히 찬양운동시간에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캠프 마지막 날, 수료식에서 아이들은 찬양운동뿐만 아니라 그들의 열정을 배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영어캠프가 넘쳐나고 있지만 주님의교회 킹덤비전 영어캠프가 귀하고 특



별한 이유는 이 캠프의 초점이 영어를 가르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교회 영어캠프 이름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캠프의 주된 목적은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영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영어를 배워야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이들의 것’이라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눅 18:16).

개회식에서 학생들에게 영어캠프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킹덤비전 영어캠프에서 ‘킹덤’)은 누구의 나라이죠?” 그러자 어느 한 용감한 아이가 “하나님의 것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대답은 교회에서는 항상 옳은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 여자아이의 대담함에 상점을 주고 싶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대답도 정답이었을 것입니다.

존 슈나이더 목사 / 박찬 전도사 옮김

2014 비전트립 현장 보고서

2014 비전트립,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여행

베트남, 키르기즈스탄, 코스타리카, Z국

“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욥 42:5)
라고 고백한 욥의 마음을
선교의 현장 가운데
경험하는 길

낮선 문화속 하나님 나라 현장

비전트립은 그동안 멀리서 소식
으로만 접했던 선교의 현장을 직
접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듣고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리고 우리 주변 삶의 영역을 벗
어나 전혀 다르고 낯선 문화속
에서 하나님나라의 현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느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교회에는 크게 파송선교
사와 협력선교사 2종류의 선교
사님들이 계십니다. 파송선교사
는 교단 총회파송이며 주님의교
회 주후원으로 선교사의 개인 신
수비와 다양한 사역비를 지원하
는 선교사로 현재 5개국의 파송
선교사가 계시고 협력선교사는
주후원교회가 타 교회이므로 우
리교회에서는 매달 20만원을 지
원하는 것으로 현재 6개국의 협
력선교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파송선교사, 협력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선교의
현장을 다녀오기 위해 이른 봄부
터 참여할 성도들을 모집하는 것
으로 시작하여 열심히 준비해왔
습니다. 물론 비전트립이 끝나자
마자 선교사님과 함께 다음연도
의 비전트립을 기획하고 준비하
는 것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케냐, 헝가리는 현지사정으로 취소

베트남, 케냐, 코스타리카, 키르
기즈스탄, 헝가리, Z국 등의 나
라에 참여할 성도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현지의 사정과 다양한
이유로 인해 케냐, 헝가리는 다
녀오지 못하고 베트남, 코스타
리카, 키르기즈스탄, Z국에 60여
명의 성도들이 비전트립을 다녀
오게 되었습니다.

복지선교, 문화선교, 의료선교,
교육선교 등 선교의 현장에 맞게
다양하게 준비한 사역들을 현지
에 가서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때로는 현지의 NGO단체와
협력하기도 하면서 그 곳에서 예
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
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소중
한 기회였습니다.

쉽지 않은 선교의 현장

겨자씨헌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베트남교회들을 탐방하고 그
곳에서 함께 한 기도의 불길이 베
트남 온 땅으로 활활 타오르기를
기도했던 추억들, 멀리 타국으로
떨어져 있어서 신앙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신
앙교육을 해준 키르기즈스탄의
사역들, 차로 이동할 수 없는 지
역에 몇 시간씩 걸어 들어가 인디
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코스타
리카 사역들 모두 모두 타문화권
에서의 선교는 쉬운 일이 아님을
다시 한 번 실감하면서도 선교사
님의 선교현장을 함께 찾아다니
며 또한 함께 기도하는 것만으로
도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 하
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알수
있었습니다.

매년 참가 인원 늘어

이제는 매년 비전트립에 참가하
는 성도들의 수가 증가하여 하나
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함께 나
누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직접
참여할 수 없어서 마음으로 또
는 물품, 금액으로 후원해 주시
는 분들이 올해 160여명으로 지
난해에 비해 35%이상 증가했다
는 것은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

다. 다시 한 번 다양한 모습으로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표
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
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여러
곳에서 수행하는 모습들이 더 많
이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
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
를 뵈옵나이다”(욥42장5절)라고
고백한 욥의 마음을 선교의 현장
가운데 경험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
혜에 감사드리며 다음 비전트립
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함으
로 선교하는 교회의 사명을 온전
히 감당하는 주님의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수고
한 해외선교분과 스텝, 직접 참
여한 성도, 기도와 물질로 후원
한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
를 전합니다.

박중규 장로 / 해외선교분과 위원장

2014 비전트립 현장 보고서

베트남, 주님과 함께 한 먼 길

베트남 비전 트립팀은 7월30일에서 8월4일까지 4박 6일의 일정으로 베트남 남부에 위치한 빈롱성에서 의료사역과 집짓기 사역을 하였다. 조정현 목사님을 포함하여 총 2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의료팀 및 집짓기팀을 중심으로 문화팀, 풍선아트팀, 진행팀으로 업무가 분장되었다. 특히 의료팀에 한국에서 서준규 안수집사와 함께 일하고 있는 베트남 의사 한 분과 그의 베트남 현지 동료 의사 2분도 같이 참여하게 되어 풍성한 의료진이 구성되었고, 여자 권사님 집사님 중심으로 한국무용(부채춤)을 응용한 워십 댄스 문화팀이 구성되어 어느 때보다도 다채롭게 사역팀이 구성되었다.

또한 많은 성도님들이 기증해주신 학용품, 의약품 및 기타 사역물품을 포장하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꼈고, 여러 가지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팀웍이 형성되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

7월31일 드디어 우리는 베트남을 향해 출발했고, 예상치 않게 수월하게 진행된 입국수속과 세관검사에서 다소 놀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구나하는 믿음이 생겼다. 공항 밖으로 나가니 최병관 선교사님과 하루먼저 오신 박원호 담임목사님 그리고 베트남 현지 의료진이 우리를 맞이하였고, 일행과 같이 모두 버스를 타고 바로 사역지인 빈롱시로 향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빈롱성 봉림군 중히우면 사무소를 방문 인민위원회 관계자들과 인사를 하고 인근 보건소에 의료팀의 진료소와 약국을 개설하여 봉사를 시작하였고,

집짓기 대원은 근처 집짓기 사역을 할 장소로 이동하였다.

의료사역은 풍성한 의료진 덕분에 비뇨기과, 내과, 방사선과, 치과 등 다양한 분야의 진료가 진행되어 이틀간에 걸쳐 약 70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였다. 의료사역이 진행 중인 앞마당에서는 풍선 아트가 진행되면서 많은 동네 아이들이 모여들어, 진료 받으러온 노인인과 함께 어울려 있는 모습이 동네 축제를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였다.

특히 이튿날 진료 시작 전 보건소 앞마당에서 진행된 워십 문화공연은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현지인들은 관람하면서 많은 환호를 보냈고 공연하는 대원이나 관람하는 팀원 모두 감격스러웠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시는구나! 그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이고 선교활동이 금지되어있는 베트남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워십댄스를 할 수 있을 수 있다니! 비록 음악이 한국어로 되어 있었지만, 춤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되었으리라 확신한다.

사랑의 집짓기는 동네에서 가장 힘든 가정에 새집을 마련해 드리고 재할할 수 있도록 송아지를 드리는 사역이다. 금년부터는 집의 벽체가 야자잎에서 벽돌 시멘트로 바뀌면서 우리의 사역도 페인트칠로 정해졌으며, 첫날 오후에는 담임목사님이 사랑의 집짓기 동참하여 대원들과 같이 수고를 해주셨으며, 다음날에는 집과 송아지를 기증받은 세 가정과 관계공무원이 함께 하여 헌정식을 가졌다.

가난한 초등학교 학생에게 새 학기용 공책 나누어주기 행사는 빈롱성 내 5개면에서 한 학교씩 지정하여 5개 학교에 학교당 1,000권씩 총 5,000권을 기증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는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중히우면에 있는 한 학교에 문화공연도하고 학생 개개인에



게 공책을 나누워 주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 학생들 중 많은 학생들이 우리를 기억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

이틀에 걸친 의료 및 집짓기 사역을 끝내고, 토요일에는 우리 겨자씨에서 후원해주고 있는 칸토 성에 있는 바세 교회를 방문했다. 바세 교회는 두분의 교사출신 전도사님 부부가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많은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야학과 같은 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시키고 있는 교회다. 비공식적인 방문이기 때문에 당국과 문제 발생 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베트남 남부총회 목사님 한분이 인도하시기로 하셨는데, 방문 하루 전에 그분의 모친이 갑자기 소천하시는 바람에 같이 못하신다는 연락이 있어 우리 측과 상대방 교회 측 모두 난감해 했다. 하지만 전도사님 부부가 다행히 우리 행사를 야학의 종업식으로 당국에 신고하여 모든 걱정이 사라졌고,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당당하게 문화공연과 학용품 전달을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멀지 않은 장래에 이곳 베트남에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날이 오리라는 믿음과 소망이 생긴다. 얼어붙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베트남에도 서서히 봄은 찾아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교사님은 그 동안 베트남에서 기독교인임을 나타내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꾸준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였고, 실제 우리는 우리의 활동이 현지에서 환영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를 위해 많은 준비와 헌신이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있으며 우리를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원하시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금번 비전트립을 통해 모든 팀원들 큰 은혜를 입고 주님 안에서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변화되리라 확신하며, 주님께서 베트남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해주시길 소망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현금과 물품을 기증해주신 교우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선 집사 / 동남아팀

2014 비전트립 현장 보고서

코스타리카, 가장 먼 파송 선교

지난 3년간의 해외선교부 사역을 마무리하며 꼭 한번 가보려고 버르던 가장 먼 파송 선교지 코스타리카를 비전트립팀의 일원으로 8월2일 부터 8월13일까지 다녀왔습니다.

20여 년 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아무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곳으로 무작정 떠나 현재까지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금상호 선교사님과 김미경 사모님을 격려하고 현장을 직접 보고 몸으로 느껴보려고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선교사님과 소식을 주고받을 때마다 낯선 이름의 스페인어로 된 교회와 지역들을 실제로 방문하고, 성경교실과 전도를 통해 그들과 복음을 나누고 교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되어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 캐리비안 해변(대서양)에서 아침을 먹고 저녁식사는 태평양 해변에서 할 수 있는 남한면적의 반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지만 3,000M 급 산과 열대 우림이 어우러진 생태계의 보고, 코스타리카.

이렇게 좋은 나라에도 저희들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침략자들에게 쫓겨 힘들고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어 은둔의 삶을 사는 인디언 원주민 후손들과 주로 니카라과 난민들로 구성된 도시빈민들, 그리고 교도소에 수감된 분들입니다.

떠나기 전에 모두들 바빠서 제대로 손발을 몇 번 맞추어 보지 못하고 출발했지만 마치 준비된 팀처



럼 모든 사역을 즐겁고 순조롭게 진행 시켜주신 주님의 도우심에 감탄했습니다.

팀의 막내들로서 안무와 찬양을 맡은 조아영 자매와 사진을 담당한 박준수 형제, 유능한 젊은 청년들로 회계를 맡은 방주미 자매와 기록을 맡은 김담희 자매, 그리고 풍부한 경험과 열정으로 총무를 맡아주신 최재경권사님과 헌신적인 봉사와 재치로 팀의 어머니 역할을 해주신 전해영권사님, 경건회와 설교로 마음의 양식을 공급해주신 유기영목사님. 국제화된 능력으로 성경학교를 능숙하게 이끌어준 자랑스런 금잔디, 금강산 남매 (선교사님 자녀), 시원스런 웃음의 카리스마 리더쉽을 발휘해 주신 김미경 사모님, 그리고 시인이자 선비 같은 금상호선교사님. 신앙 경력이 길지 않은 저에게 좋은 선배들이셨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은 이틀째 되던 날 새벽에 경험한 진도 4~5의 지진으로 놀라 깨어난 일과 미국 달라스에서 코스타리카 산호세행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온통 미국 교회의 다양한 선교팀들과 함께

한 기억들입니다.

아쉬웠던 점은 험준함과 비 오는 날씨 때문에 4륜 구동 차로도 갈 수 없어 발길을 돌려야 했던 깊은 산속 인디언원주민 마을 방문이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원하셨던 의료선교팀이 구성되지 못한 것도 아쉬움 중의 하나였지만 다행히 기증해 주신 의약품은 전달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갈 때, 올 때 하루 반씩 3일, 비행기 고장으로 달라스에서의 1박, 그리고 시차까지 더하면 무려 5일간의 이동 기간이 소요된 먼 곳이었습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팀원 모두의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스타리카를 비롯한 온 지구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빨리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기창 안수집사

2014 비전트립 현장 보고서

키르기즈스탄, 그 땅을 향한 기도

7월 8일부터 16일까지 7박 9일간 다녀온 키르기즈스탄 비전트립팀의 주 사역은 M.K 여름성경학교, 수공예 사역, 한인교회 청년 연합 캠프 및 사역지 방문이었습니다.

비전트립을 가기 위한 준비는 4월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청년부 선교 후원의 날을 위해 레몬청을 만들었고, M.K 여름성경학교의 프로그램부터 각종 준비물, 간식, 선물, 티셔츠까지 직접 발로 뛰며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전트립으로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기는 처음이라 잘 모르는 부분도 많았지만, 초등부를 섬기는 팀원들이 여럿 있어서 함께 기도하고 머리를 맞대며 준비하여 감사하게도 준비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한 비전트립팀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한 번 경유하여 7월 8일 밤 키르기즈스탄 비쉬켈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전트립 팀원들은 경건회를 갖는 것으로 아침을 시작하였고, 곧바로 이동한 현지 한인교회에서 한인교회 청년과 처음 만났습니다. 아직은 서로가 서먹하고 어색할 때였습니다. 한국에서 M.K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필요한 인원에 비해 팀원 수가 부족하여 현지에서 여름성경학교 진행을 도와줄 인원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인교회 청년들이 찬양팀, 보조 선생님 등 많은 부분들을 잘 도와주었고, 서로 부끄러워하면서도 부탁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M.K 여름성경학교는 Missionary Kids, 즉, 현지의 한인 선교사 가정 아이들을 위한 여름성경학교입니다. 여름성경학교 첫날에는 50명

의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처음 아이들을 만났을 때 느꼈던 것은 아이들이 대부분 반응이 차갑고 마음을 열지 않는 아이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혼혈 가정에서 태어나 한국말을 잘 못하거나 나이가 어려 말이 안 통하는 아이, 말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는 아이, 모든 게 다 싫다고 하는 아이 등이 그랬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이 대부분인데, 일이 많다보니 선교사님들이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할 때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 번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름성경학교 첫 찬양시간 때 어색하고 어둡기도 했던 아이들이, 조가 편성되고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서서히 표정이 밝아지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름성경학교를 마친 저녁에는 비전트립 팀원들 및 한인교회 분들과 함께 저녁식사도 먹고, 또 한인교회 청년들과 주님의 교회 청년들과 만남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M.K 여름성경학교는 총 54명의 아이들이 참여하여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3~4살의 어린 아이들, 한국어를 잘 못하는 혼혈 아이들을 비롯하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까지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이 있었음에도, 함께 잘 어울리며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름성경학교 진행과 동시에, 김정애 집사님을 통해 수공예 프로그램 또한 진행되었습니다. 수공예 사역은 본래 예상했던 참여인원보다 많았습니다.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되던 3일간 수공예 프로그램에는 선교사 사모님들, 사역자들 등 총 2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여름성경학교 참석과 더불어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



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수공예 기술이 선교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고 하니, 모두들 감개 무량하다고 하며 좋아하셨습니다.

토요일과 그 다음 주 월요일 간 이들은 현지인 자매 1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지인 자매들의 반응이 특히나 뜨거웠는데, 키르기즈스탄은 우리나라 70년대 수준이라 자원이 없어 발전도 안 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슬람의 일부다처제 문화 속에 있고 아이를 가진 채 버려진 미혼모들이 많고, 빈부격차가 심하며 생계수단이 마땅치 않은 이곳에서 수세미 수공예는 생계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공예 사역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수공예 사역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주님의 도우심 아래 선교사님 한 분이 운영수 선교사 사모님과 함께 수공예 사역을 전담하여 동역하기로 하였습니다.

M.K 여름성경학교를 마친 뒤에는 한인교회 청년 연합 모임, 주일 예배, 이스쿨 호수에서의 1박 2일 간 청년 연합 캠프 등 현지 한인교회 청년들과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태권도 사역이 이루어지는 KKC와 치과 사역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습

니다. 이곳 자매들은 결혼과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근무하기 힘든 환경에 있어 지속적인 양육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위해 많은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치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태권도를 배우는 학생들, 키르기즈스탄 이 땅의 복음화를 바라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느끼며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품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비전트립은 끝났지만, 우리에게도 조금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청년 팀원 중 한 명은 M.K 여름성경학교를 계기로 초등부 교사로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팀원들의 사이가 돈독해진 것은 물론이고, 현지 한인교회 청년들과는 지금도 카카오톡을 통해 꾸준히 연락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 한국으로 잠시 들어오는 한인교회 청년들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키르기즈스탄을 향한 관심과 애정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되는 그 날까지, 그 땅을 향한 기도를 놓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민석 청년부

2014 비전트립 현장 보고서

Z국, 마중물 한 바가지의 선교

저는 이번에 마중물선교를 다녀온 이익표입니다. 청년부에서 마중물 선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선교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부터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북한을 직접 보고 느끼고 싶어서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마중물선교를 통해서 직접 탈북자들을 만나고 그 땅에 대한 소식을 접하면서 그동안 듣던 대로 북한의 어려운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왜 외면하고 계신가?’ ‘과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일까?’ ‘애굽의 400년 노예 생활 후에 출애굽하게하신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와 같은 의문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문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들의 고통이 저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통

일이 되어 그 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저에게 ‘너는 그 땅의 회복을 위해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땅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했는지 물어 봤을 때 제가 얼마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상황을 외면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일상의 문제에 너무 집중해서 통일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제는 북한을 단순히 혐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이번 선교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지금의 삶에서 그들의 생활을 이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할 수 없음을 그리고 통일의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장 큰 공통점은 말과 글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중물 선교는 저에게 마음의 빛을 만들고 온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이후에 그 땅을 향해 더욱 관심을 갖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통일은 인간의 계획과 의지로는 이룰 수 없으며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저부터 그러한 삶을 살기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선교기간동안 기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익표 청년부

※ 마중물선교란?

‘마중물’은 ‘펌프에서 물이 잘 나오지 아닐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위에서 붓는 물’을 뜻합니다. 마중물 한 바가지로 인해 우물에서 물이 솟아오르듯이, 청년부 마중물선교를 통해 N국에 복음으로 인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는 마음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 1면에서 계속

개강 축하 복음성가 공연

12단계 성경공부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먼저 12단계 성경공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자 9월 3일(수) 오후 7시 30분 개강 때는 CCM가수 남궁송옥의 공연을 시작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12단계 성경공부를 화려히게 시작하고자 한다. 그리고 벌써부터 수요반 성경공부를 위해 퇴근후 바로오시는 분들을 위한 간식을 후원하고자 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어 또한 하나님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느낀다.

12단계 성경공부의 참된 뜻

하나님께서 주님의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재 해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줄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귀한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새롭게 시작하는 12단계 성경공부를 통해 다시 한

번 깨닫고 확신하여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기대한다.

홍성욱 목사

섬기는 손 9



입관예배, 발인예배 혹은 위로예배...
한해 100여 번 먼 길 새벽 길 마다 않고
하늘나라 가는 밝은 길
늘 함께 하며 섬기는 손

> ‘섬기는 손’은 사역 현장의 풍경을 담아 함께하기를 권유하는 작은 공간입니다. 이 사역에 동참하실 분은 김복수 안수집사(1부, 010-3634-0123) 최영배 안수집사(2부, 010-5246-7410)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함글함글

로렘나무

지상의 마지막 천국

2000년도 어느날, 교회 로비에 붙어 있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다. 혼자 교육 받기는 쑥스러워 구역원들과 주위에 아는 분들에게 같이 교육 받기를 청하였더니 호스피스봉사는 믿음이 좋아야 하는 거라고 응하는 분들이 없었고 나 역시 믿음이 걸림돌이 되어 그냥 그렇게 주저앉고 말았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이 다시 한 번 마음을 두드렸다. 이번에도 믿음이 걸리기는 했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입수하고 약간은 흥분된 마음으로 준비 기도까지 하며 교육을 받기 시작하였다.

호스피스 교육을 받는 동안에도 환우 분들께 위로는커녕 도리어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갈등으로 도중에 포기하고픈 생각이 굳어 갈

때.... 그 당시 저와 우리 집은 고난의 역경이 시작된 무렵이었고 많은 혼란 속에서 도우시는 주님을 조금씩 체험하던 터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포기하고픈 마음을 돌렸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10주간의 교육을 통하여 많은걸 알게 하시고 새로운 시각을 열어 주셨으며 특히 유언장 쓰기와 입관 체험에 많은 감동을 받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로 인도함을 받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 환우분들을 대하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았던 나는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청소와 주방일, 빨래 정리, 환우 식사 수발을 하며 성경을 읽어 드리는 일을 하였다. 어느 날 우리들의 찬송을 들으시며 조용히 눈을 감고 천국으로 이사하시는 환우분의 평안한 모습을 보았

다. 그 환우의 머리를 곱게 빗어 드리 고 몸을 닦아드리며 수의를 입혀드리 는 일까지도 하게 하신 주님은 참으로 놀라웠다.

어느 날 내안에 힘든 일로인하여 울고 난 후 눈이 통통 부은 상태로 호스피스에 도착하였을 때 만난 어느 젊은 여자 환우 분은 눕지도 앉지도 못하는 자세로 숨쉬기조차도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며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맘으로 봉사를 했던 일, 군 입대를 앞두고 병으로 인하여 팔다리를 잘라내고도 주님을 만남으로 감사하며 지냈던 환우 분, 예배시간에 읽어 드린 성경이 본인 성경과 다르다며, 또 덮는 이불과 깔려진 침대 패드가 맘에 안 든다고 유난히도 까탈스럽게 했던 환우 분, 허가 굳어 물을 삼키지 못하여 수시로 물을 떠서 넣어드리

고 하루 종일 함께하여 천국 가는 과정을 지키며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은혜의 경험들. 여기 춘천 원창리 언덕에 있는 춘천호스피스 병원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위망월 하는 지상에 마지막 천국이라고 생각한다.

호스피스 봉사는 늘 나를 부요케 하는 존재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매주 그곳을 찾게 하는 피난처요 안식처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서는 부족한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어 광야학교에 입학도 시켜주시고 섬김학교에 보내주시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살아가도록 하셨다.

오늘도 나는 청평에서 전철을 타고 환우들을 섬기기 위해 설레이는 마음으로 춘천호스피스 병원으로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이윤숙 집사

신임교역자 소감 | 문은영 목사

기도와 사랑이 나의 큰 힘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사역원에 새로 부임한 문은영입니다. 먼저 좋은 교회, 주님의 교회에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으로는 남편과 이제 중2가 된 아들(종윤)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맡겨 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밀어주시고, 사랑으로 후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서사역팀

가족신문 공모

주님의교회 도서사역팀에서 성도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만든 가족신문을 공모한다. “행복한 우리집 가족신문 만들기”라는 제목의 이 행사는 신문물을 함께 만들며 자녀와 교감하고, 바람직한 가족 문화를 만들며, 글쓰기 훈련을 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크기는 백모조지 반절지 기준이며, 신문 하단에 보호자와 청소년

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 중요한 심사 기준은 “행복한 우리집의 분위기”이다. 엄정한 심사를 통해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및 장려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마감은 9월 28일 주일 3시, 5층 도서사역팀. 10월 5일 수상자를 발표하고 10월 12일 시상식이 진행된다.

문의: 신영백 안수집사 010 2684 8320

정신학원에 깃든 한국기독교의 역사 5

장로회 여학교 제2교사(校舎)의 위치



언더우드그린 정동 장로회여학교 위치

그림은 언더우드작성한 정동기독교 선교지지의 약도로 알려져 있다. (필자註 - 1891년 4월 3일에서 1895년 10월 20일 사이에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 초기 선교사들은 덕수궁 뒤편 미공사관 옆, 정동에 모여 거주했다.

아래 부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난 길은 정동교회에서 서대문 쪽으로 향하는 길로 지금도 폭이 넓은 채 그대로 있다. 훗날 길 아래 쪽은 모두 감리회 남, 여학교의 부

지가 된다.

길 위쪽 가운데 ‘H.G.U House’는 언더우드 집이고 그 왼쪽으로 (후에 장로회 신학대학을 세운) 마펫의 집이 있고, 왼쪽 위는 (후일 고종이 일본군을 피해 피신한 소위 아관파천(俄館播遷)의) 러시아 공사관이 있다. 지금은 러시아 공사관이 이전했으나 공사관 탑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다.

언더우드 집 안에 ‘church’로 표시된 것은 1897년 세워진 최초의 조직교회인 정동교회이다. 그 옆에 ‘girl

school’이 있다. 그 오른쪽의 ‘American regation’은 미공사관이다.

‘girl school’은 원래 알렌이 입국해서부터 살던 집이었다(1884.9.24. 알렌의 일기). 1887년 9월에 알렌이 참찬관으로 미국으로 떠난 후, 정동 28번지에 있던 장로회 여학교가 1889년 봄에 정동 1-11번지인 이곳으로 옮겨 온 것이다. 그러니까 장로회 여학교(정신여학교) 제2의 교사(校舎)의 위치이다. 학교는 1895년 종로구 연지동으로 이전할 때까지 이곳에 있었다. **이희천** 정신여고 교감

교육목회원 여름 수련회

영아부

♪사랑을 나눠요 팡팡♪ 아기들의 입술에서 찬양과 웃음이 가득했던 영아부 여름성경학교는 모든 프로그램 안에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나아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친구들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풍성히 채워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맡은 바 사역에 충성을 다해 섬겨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희영 목사



유아부

썩트네 유아부 여름성경학교는 “예수님의 사랑, 온 세상에 팡팡!”이라는 주제로 7월 19일, 20일 유아부실에서 열렸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가득 담고, 유아부 친구들을 꼭 안아주는 따뜻한 선생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음껏 뛰어놀며 함박웃음을 짓는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작은 천국을 경험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과 떨어져 예배드리는 것을 어려워했던 친구들이 성경학교를 통해 선생님에게 마음문을 활짝 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뜻깊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유아부 친구들이, 온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친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순서마다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열심으로 섬겨주신 유아부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김해나 교사



유치부

2014년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는 7월 26일(토), 27일(주일)에 교회 내에서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온 세상에 팡팡!”이라는 주제로 ‘사랑을 나눠요 팡팡!’, ‘팡팡 나눠줘요 예수님의 사랑’ 등 기쁨의 찬양을 드렸고 선생님들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귀한 공과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유치부 어린이들의 마음을 여는 레크레이션과 쉼마뮤직, 팡팡 만들기 등 신나는 활동센터가 열렸고, 하나님의 은혜로 비가 오지 않게 해주셔서 물놀이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온 교회에 가득한 사랑 넘치는 성경학교였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로 준비한 시간들, 그리고 시간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던 여름성경학교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유치부 어린이들과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

전보영 목사



유년부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유년부에서는 1,2부 연합으로 여름성경캠프를 안성너리굴 문화마을로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매년마다 여름성경캠프를 하면서 역시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우신다는 걸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유년부 여름캠프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라는 주제 아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과 친구되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자는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열심히 성경공과공부를 하며, 신나는 찬양과 워터페스티벌, 기도회, 캠프파이어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날 26일 교회에 와서 마무리 성경퀴즈와 또 선생님들이 준비하신 연극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 목각인형 만들기, 폐회예배로 무사히 마쳤습니다. 아이들과 친해지고 영적으로 가까워지는 너무 귀한 기간이었습니다.

권양순 총무



소년부

아름드리 소년부는 지난 7월 25일(금)부터 27일(주일)까지 경기도 이천 덕평수련원에서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 (막 10:45)”이라는 주제로 여름캠프를 실시했습니다. 교사 40명, 학생 74명이 일상을 떠나 2박 3일 동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고 사랑과 나눔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와 기도회, 말씀 묵상을 통해 경건을 훈련하였으며, 공동체 게임과 런닝맨, 댄싱존(John), 야간매점, 캠프파이어, 물놀이, 텐트체험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며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해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소년부 여름캠프를 위해 기도해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샬롬!

양은영 전도사



초등부



2014년 햇살뜨락 초등부 여름캠프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라는 주제로 7월 27일(주일)부터 29일(화)까지 용인 한터캠프에서 70명의 어린이와 45명의 교사 그리고 2명의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여름캠프는 예배와 성경공부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인 햇살뜨락 초등부 어린이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름캠프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여름캠프를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과 여름캠프를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동혁 전도사

청소년부 연합수련회



“함께” 한다는 것은 참 아름답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행복입니다. 이번 여름에 주님의교회 중고등부가 7월31-8월2일(2박3일)동안 천안 국립 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세상을 섬기는 티에이저”라는 주제로 “함께”예배하고 “함께”뛰며 “함께”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중고등부 아이들 서로가 많이 어색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었고 서로 챙겨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획하고 준비한 ‘세상 속으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아이들은 3개교회의 미자립교회를 섬길 수 있었고, 천안 시내에서 노방전도와 노방찬양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녁 집회시간은 아이

들이 목소리 높여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눈물로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결단 예배 때 한 명 한 명 나와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 간증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은 주님의교회 청소년 공동체를 더욱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셨습니다. 3달간의 준비기간을 비롯해 수련회 2박 3일동안 모든 일정을 안전하고 은혜롭게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더 많은 사진과 영상은 여기에 <http://www.facebook.com/highteennews>)

김성일 전도사

꼬마인터뷰 | 아픈 몸으로 수화봉사했던 최영숙 권사

장애인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이는 가냘팠다. 뇌종양으로 수술을 받았고, 회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도 부자유스럽다. 그러나 그이는 순간 순간에도 감사를 드리며 예배당에서 청각장애인과 사랑을 나눈다. 세상에 꽃이 아닌 것이 없듯, 장애인들이 없는 세상은 세상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이는 지난 2000년부터 4명의 청각장애인과 예배를 드리며 봉사를 시작했다. 그동안 매달 안양교도소를 방문 청각장애자들과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캄보디아와 베트남 비전트립도 다녀왔다. 선교관 장애를 넘어선다는 것도 그때 깨달았다.

그러다가 뇌종양에 걸렸다. 물론 당시엔 몹시 고통스러웠다. 세상이 불공평해 보였고,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는 생각도 들었다.

지난 3월, 다행히 완쾌되어 남편 강승중 안수집사의 부축으로 교회 현관에 들어설 때, 정말 주저앉아 울고 싶었다. 같이 기도해준 교우와 옆에서 지켜준 남편이 정말 고맙다. 새로 예배당에서 수화통역을 맡은 윤명범 집사의 봉사에 또한 감사한다.

함글함글

교회 단신

2014 하반기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



하반기겨자씨인도자 수련회가 8월 24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되었다. 초청강사는 소그룹목회연구원 이상화 목사이었으며, 2차는 8월 31일 진행될 예정이다. 참석대상자는 겨자목 섬김이, 겨자채돌봄이, 겨자씨인도자 및 권찰이다. 겨자씨 모임은 9월 14일부터 시작된다.

함글함글

2014년 항존직 후보 추천 투표



2014년 항존직 후보 추천 투표가 8월 24일 오전 8시 30분 오후 3시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금년도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 장로(은퇴, 사임, 협동), 권사(시무, 은퇴), 안수집사(시무, 은퇴), 겨자씨인도자, 제직부서 부서장

함글함글

교회사역일정

- | | |
|-----------------------|---------------------|
| 8.31 (주): 겨자씨인도자 수련회2 | 9.3 (수): 겨자씨 인도자 개강 |
| 9.2 (화): 양육클래스 개강 | 12단계 성경공부 개강 |
| 예천사 개강 | 9.5 (금): 금요기도회 |
| 늘푸른 대학 2학기 개강 | 9.7 (주): 성찬주일 |
| | 9.15 (월): 정기당회 |

함글함글 카툰



주님의 교회

호스피스교육

교육일정: **9월 11일~12월 4일** (매주 목 / 오후 1시 ~ 5시)

장 소: 각당복지재단 강당 (신문로 2가 1-120)

대 상: 호스피스에 관심있는 모든분, 선착순 50명

교 육 비: 120,000원 (교재, 실습 포함)

특 전: 교육수료후 200시간 봉사시 소정의 시험후
한국호스피스협회 인증서 발급

등록문의: 김양자 장로 010-6250-0670

박혜진 팀장 010-2825-7727

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 무지개호스피스 연구회

신앙상담 ☎ 02-416-5183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да구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